

## “우정과 친절로 되찾은

지금은 9월 중순, 풍요로운 가을경치를 만끽하면서 기자는 춘천으로 달린다.

지난 여름의 그 지긋 지긋했던 수마(水魔)의 상처도 언제 그랬더냐싶게 말끔히 가시고 격양가(激壤歌)드높은 가을 들녘엔 누렇게 익은 벼 이삭이 풍년을 상징하듯 풍성하기만 하다.

人生이란 원래 외로운것이라 했다던가-. 京春철도의 낭만은 예쁘게 단장한 기차속에서 나흔자만의 외로움으로 머나 먼 고향에의 향수까지 느끼게 한다.

서울에서 정확히 1시간 30분-. 남춘천역에 닿았다.

기자가 내려온 목적은 鄭南淑양 (춘천시 호야2동 310번지 14호, 30세)을 만나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健協 강원도지부의 덕택으로 자기몸의 이상이 말끔히 가시고 건강을 되찾은 기쁨에서 꼭 한번 인터뷰를 부탁 받은 때문이었다.

간담



# 나의 건강과 행복 ”

— 간염으로 수개월의 투병 생활을 해야 했던 鄭南淑 양

묘령의 여인 정 남숙양이 다소곳이 앉아 기사를 맞이하고 있었다.

건협 강원도지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춘천시 동 소재 여성건강관리소 대합실에서였다.

미인형의 예쁘장하고 늘씬한 몸매를 지니고 있는 정양에게 우선 호감이 갔다. 사기의 혈액형은 O형이라는데 O형답지 않게 다소곳한 모습에서 기자는 우선 한국 여인상의 우아함을 느끼고 있었다.

또 한가지 얘기 할 것은 이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원 아가씨 吉淑喜 양. 이번 하기연수교육에서 기사를 보았노라면서 반갑게 맞아준다. 우선 서글 서글한 사교성에서 대인관계에 호감을 살수 있는, 그러면서도 교양을 갖춘 강원도 지부의 꽃다운 간호원 아가씨다.

**약도 몇번 조제해 먹었지만...**

정남숙양은 우선 내원하여 검사하게 된 동기를 이렇게 이야기한다.

『몇년전부터 몸이 쉬 피곤하고 밤에 잠을 자도 잔것같지 않은 기분이었어요. 그러면서 얼굴의 혈색이 노랗게 좋지 않아지고 꼭 무슨 병에 든것같은 기분이 들더군요. 그리하여 약국에서 약도 몇번 조제하여 먹어보았으나 별 효과를 못 보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더 못참겠구나하고 생각하던중 문득 애가 생각나졌지요!』라며 옆에 앉아있는 吉淑喜 양을 가리킨다.

**친구의 권유로 받은 건강검사에서 간기능 이상 발견**

鄭南淑 양과 吉淑喜 양은 사실은 막역한 친구사이—. 吉양이 鄭양의 말을 받아 이야기를 계속한다.

『저와 南淑 양과는 막역한 친구사이예요. 어느날 저와 만나 이야기하는 중에 얼굴이 좋지 않고 피로한 기색이기에 물어보았더니 자기 자신의 컨디션에 대해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러길래 대뜸 우리 협회를 소개했습니다. 덧붙여서 예방 의학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역설하고 현대병의 추세를 말했지요. 그리하여 우선 검사부터 받기로 하고 지난 4월2일 제 1 차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다른 곳은 이상이 없는데 반해 간기능의 G.O.T.가 88, G.P.T.가 122로 나오더군요. 간염검사 결과는 항원이 생겨 양성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풀이해서 설명하면 이런



건강관리는 “건강관리 협회다”라는 인식이 심어 지도록 대국민 홍보 계몽 활동과 사업을 링크시켜 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히는 강원지부 이우광 사업 과장 (사진 (좌))

것입니다.

즉 G.O.T.의 정상치는 38이하가 정상치이고 G.P.T.의 정상치는 35이하가 정상치인데 반해 鄭南淑양은 정상치보다 수치가 높음으로 급성간염이나 만성화 된 간염 기타 간장질환을 앓고 있다는 말이되는 것이지요. 간염증세도 항원이 생겼음으로 현재 진행중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셈입니다.』

이렇게 되어 판정결과는 간염을 앓고 있다고 결론이 나왔다.

### 간에 관계되는 책자를 읽으면서 시작한 투병 생활

鄭양은 앞이 캄캄했다. 이미 애인이 있는 몸, 앞으로 약혼, 결혼 등 닥아올 인생의 꽃다운 시기를 이대로 보낼 수가 없었다. 그녀는 새로운 각오를 단단히 했다. 그리고 투병생활의 새생활을 시작했다.

『우선 건강관리협회에서 발행한 「간경변증 이야기」란 책자를 열심히 읽었지요. 그리고 그 속에 나오는 환자들의 생활수칙을 그대로 지켜나갔지요. 그러나 미혼인 저로서는 지켜나가기가 몹시 힘든 것만은 사실이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의지가 약해질려고 하면 건강관리협회를 찾아가 험크러진 마음에 협조를 구하곤 했습니다. 이럴라치면 이곳 건협 직원들은 따뜻한 상담과 친절로 나의 용기를 북돋아 주곤 했지요.』

### 6 개월 후의 재검사에서는 모든 기능 정상

정양은 말하기를, 지금와서 돌이켜 생각해 보아도 그때 그런 고마움이 없었더라면 자기의 몸이 이렇게 잘 나아서 완쾌될 수가 없었을 것이라면서 감사했습니다.

『이런 투병생활을 5,6개월 하고난 후 나도 모르게 몸이 날것 같고 건강에 자신이 생기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재검사를 받는 9월15일은 약간 두려움이 앞섰지만 건협 직원들의 따뜻한 격려에 힘입어 검사에 임했습니다.』

드디어 검사결과가 나왔다. G.O.T. 38, G.P.T. 31, 간염에 항체(양성)가 생겼다. 마침내 간기능 정상, 간염도 많이 나아져 항원에서 항체로 나아져 있었고.

『검사결과는 나로 하여금 날아갈것 같은 기분과 이 세상이 모두 내것인 양 생각이 들게 해 주었지요. 정말 온통 내 세상이었습니다.』

鄭南淑양과 吉淑喜양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정말 기쁨의 눈물방울이 두사람 사이에서 반짝이는것을 느낄 수 있어 기자는 한순간 눈매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수 밖에 없었다.

**무슨 병이던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양은 다시 말한다.

『이젠 저의 애인도 건강한 몸으로 뿔뿔이 만날수 있고요, 부모님께도 효도를 한 기분이예요. 결론적으로 지금 느끼는 심정은 무슨 병이던 조기발견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가졌던 병이 더욱 더 발견이 늦어져 중병으로 발전했다면 얼마나 무서울까를 생각하니 생각만해도 소름이 끼칠 지경이에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따뜻한 견협 직원들의 친절과 특히 친구 吉淑喜양의 지도로 이 완치된것을 고개 숙여 감사하고 싶어요.』

춘천에서 태어난 정양은 서울의 聖德女商을 졸업한 서울 유학생一.

자기가 즐기는 낚시도 몸이 튼튼해 이젠 마음껏 할 수 있어 좋다는 정양은 연신 방글 방글 입을 다물줄을 몰랐다.

**사업을랑보다는 내식을 기하기에 노력하는 강원지부**

기자과 한자리에 앉은 강원도지부 李又光사업과장은 자기 지부의 청사진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이번 鄭南淑양의 경우에도 보셨겠지만 우리지부는 張在晟국장님의 지도방침이 대인관계에 친절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범을 보이려는 것이지요.』

우리지부 전직원들은 업무를 책임수행하고 일심동체가 되어 강원도가 제 1위 지부로 부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량의 다과보다 내실을 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건강관리는 「건강관리협회다」라는 인식이 박히도록 홍보와 사업을 링크시켜 나갈 각오입니다.』

호반의 도시 춘천은 석양무렵이 더욱 아름다운가 보다. 춘천을 싸고 도는 공지천 호반은 젊은 청춘남녀의 보금자리인양 한쪽의 그림같이 아름답다.

서울행 열차에 몸을 실은 기자는 그 황홀함에 취하면서 으뜸가는 산천을 가진 강원지부가 李사업과장 말대로 정말 제 1위 지부가 되도록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빌어보았다.